

경쟁주의와 학력격차가 불러온 도시 간 명문고 경쟁,
그리고 학생의 권리
수도권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Competition to hold prestige high school between cities, and students'
human right; Centered around south-west capital area

김기남*

이 논문의 목적은 경쟁을 강조하는 학교교육 풍토로 인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밝혀내는데 있다. 경쟁주의로 인한 첫 번째 문제는 도시지역 내, 그리고 도시 지역 간에 발생하는 학력격차에 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적을 파악해본 결과 중학교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성적격차가 고등학교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학생들이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써 인해 집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진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적이 낮은 시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명문고육성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경쟁주의적인 교육풍토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은 성적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쟁주의를 지양하고 고교평준화와 같이 경쟁을 지양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또한 최근 발표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주요어: 학력격차, 학생인권조례, 도시에 대한 권리, 고교평준화,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

1. 서론

1) 문제제기: 도시의 교육환경과 학생의 권리

2000년부터 실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두 나라의 교육환경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먼저 가장 상위층이 두텁게 나타났으며 성취도 또한 가장 높았던 핀란드의 교육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반면, 뒤이어 2위를 차지한 우리나라도 핀란드에 견줄만한 성취도를 보이고 있지만(2003년, 2006년 PISA종합순위), 이 두 나라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이에 대해 2006년 PISA 책임관리자인 베르나르 위니에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에 속하는 건 사실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학생들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의 학생들이 경쟁을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임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06년 PISA 과학적 소양에 있어서는 최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과학에 대한 흥미도에서는 최하위권을 기록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공부를 잘하지만 부러움을 사지 못하는 한국의 학생들은 경쟁체제하에서 다른 학생들을 누르기 위한 교육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듯하다.

2008년 7월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 전 교육감은 당선인터뷰에서 “일본과 미국이 이미 경쟁교육체제로 가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철저히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자신의 교육관을 이야기한 바 있으며,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공정택 전 교육감의 당선을 두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교육정책에 힘을 실어 준 바 있다. 교육선진국의 정책적인 추세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경쟁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표명이라 볼 수 있다. 이어서 2010년 대통령 신년국정연설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도 경쟁하고, 선생님도 경쟁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은 앞

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교육방향의 변함이 없음을 잘 드러내 주는 사례다. 물론, 이를 토대로 연설의 서두에서 언급한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경쟁위주의 교육방향이 병립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철저히 경쟁위주의 교육방향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서울시의 고교선택제는 본래의 시행 취지와는 다르게 그간 1974년부터 실시되어온 고교평준화의 방향으로부터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 지금까지의 교육방향에 대한 큰 틀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과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나은 학력수준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부임비 과거의 병폐들이 다시금 부활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지난 두 정권을 통해서 잠시나마 자율화되었던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은 이미 일반화 된지 오래되었으며, 이도 모자라 많은 고등학교에서 기숙사와 같은 시설을 통해서 학생들을 더 오래도록 학교에서 남겨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은 몇몇 지역에서 중학교 단위로까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여러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는 다소 극단적인 사례로, 그간 비교적 학력수준이 낮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학력상승을 위한 정책이다. 과연 이런 방법들이 진실로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지는 검증되지 않은 채, 인접학교 또는 인접도시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경쟁이 점차로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런 교육현실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1장에서는 성적에 따라서 학교와 지역이 나뉘는 자세한 상황을 통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주변 지역 또는 인근 도시지역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2-2장에서의 명문고 육성프로젝트는 경쟁적인 교육풍토와 학력격차로 인해 발생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로 드러나게 하는 사례로서 매우 의미가 깊다. 특히,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성취도가 높은 학교와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은 예산분배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어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2-3장에서 이런 교육풍토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다룬다.

2) 이론적 배경

본 논문에서의 사례연구를 통해 가장 주요하게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차별적인 교육기회부여에 있어서의 사회정의에 있다. 한편, 학교선택권을 침해받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논의를 학생의 권리에 적용을 통해 문제를 진단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인권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의 경우 경쟁을 통한 서열화와 과다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에서 나타나는 교육기회의 차등성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 큰 틀에서의 접근방법으로 이러한 사회정의 논의를 적용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보편적인 권리의 문제로서 논의된 인종, 문화 등의 차별적인 문제보다는,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차별의 잣대에 대해서 차이의 권리를 주장하는 도시권 논의를 적용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의 문제를 일반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의 정의문제를 교육에 적용시키기는 것은 교육기회에 있어서의 분배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둬으로써 가능하다. 사회적 공동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는 제한된 교육기회를 둘러싼 갈등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이런 배분의 기준으로 가장 빈번하게 거론이 되는 것은 능력이다(Harvey, 1973; 전제아, 2001). 오늘날의 경쟁적인 교육환경은 이 능력을 기준으로 교육기회를 배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전제

로 하고 있다. 하지만, 롤스(1971)는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라는 사실만큼이나 어떤 재능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느냐라는 것도 우연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선천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을 위한 유리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훌륭한 능력은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용될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한다.

하비(1973)는 사회정의를 규정하는데 있어 공리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적인 분배의 정의를 비판하면서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롤스의 견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이는 다음의 진술에 근거한다. “사람들이 사회체계의 작용에서 그 한 몫을 담당할 때, 보다 유리한 사람의 더 큰 기대가 불리한 사람의 기대를 개선할 수 있을 경우만 단지 이러한 차이는 정당하다고 간주한다.” 이와 비슷하게 도시에 대한 권리를 다룬 세계도시권현장¹⁾에서도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도시의 정의는 약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다”는 취약그룹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것만을 통해서 보더라도 능력을 기준으로 교육기회를 배분한다면, 오히려 능력에 있어 취약한 그룹에게 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도출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격차의 문제를 보면, 비단 순수하게 개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지 않는다. 만약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면, 그 격차의 원인은 단순히 교육성차가 우수한 지역에 순수하게 능력이 많은 학생이 분포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분명, 외적인 요인이 이러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주요 외적인 요인으로는 거주지의 소득수준이, 도·농 간 경제적 격차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부의 교육수준이 학생의 학업

1) UNESCO, UN-HABITAT, 2009.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흥미롭다(OECD, 2004a; 류방란, 김성식, 2006; 윤형호, 강민정, 2009; 최은영, 2007). 미국의 경우도 이러한 교육격차에 대한 관심이 다각도로 제기되어 왔는데, 주목할 만한 것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다. Coleman(1982)의 경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학력격차를 비교하였고, 결과 사립학교가 더 높은 성취도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으로 Alexander(1983)은 이는 학교 간의 차이가 아니라 학생들의 배경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 둘 간의 연구는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격차는 순수한 학습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이런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까지도 정당한 교육분배의 기준으로 작용을 한다면 경쟁의 결과는 명료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쟁의 결과는 종종 학교 내의 인권문제와 도시에 대한 권리의 문제를 야기한다.²⁾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풍토에서 나타나는 성적에 대한 물질론적인 인식의 전제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로는 르페브르의 논의를 참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경쟁의 결과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 르페브르의 다음과 같은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이의 권리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다. ... 르페브르는 차이의 권리를 균일화된 권력에 의해 정해진 범주에 의해 강제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권리로 기술하고 있다(Lefebvre, 1976; Dikec, 2001에서 재인용).

성적이라는 보편적인 하나의 기준에 의해 차별받는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인권문제와, 낮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먼 곳으로 학교를 진학해야 하는 현상과 같이 학교선택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여기서 보편적 권

2) 성적주의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3. 경쟁주의적인 도시의 교육과 학생의 권리」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리로서 도시공간에 대한 차이의 권리(right to difference)에 있어서 르페브르의 이론을 토대로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간과할 수 없는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대한 배경으로 세계 인권관련 조약과, 도시권 관련 조약들을 참고 할 수 있다. 일반 인권과 관련한 국제조약을 참고하면,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³⁾라는 규정을 통해 교육에 있어서 인권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시와 국가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러한 이념들에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World Urban Forum, 2004).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경쟁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인권이나 자유로운 권리 등은 종종 위기에 처한다. 교육에 대한 정의의 조건은 OECD 보고서를 통해 볼 수 있다. “이주민들과 소수자에 대해 공정하고 포용성 있는 교육은 사회적인 통합에 있어서 핵심과제다. 교육의 평등성은 사회적 통합과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공정한 교육의 두 가지 측면은 공정성(인종, 성별 등이 교육을 통한 가능성을 획득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과 포용성(모든 이들이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수행함을 통해 학교실패를 없애는 것)을 들 수 있다”(OECD, 2004b).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공정한 교육의 조건으로 공정성과 포용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위계적인 학업성적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

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3조 1항.

에서 이와 같은 공정성과 포용성이 얼마나 보장될지 의문이다. 획일적으로 위계화 된 평가제도 하에서는 풍부한 교육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준화된 교육방식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정의 측면에서 공정성을 가져올 수 없다(McNeil, 2000). 따라서 교육의 표준화된 경쟁에 따라서 지자체들 간, 그리고 서로 다른 학교들 간의 위계성이 나타난다. 이런 표준화된 경쟁교육이 어떤 식으로 교육의 사회정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본론-사례연구

1) 수도권 서남부 비평준화 지역을 사례로 본 도시 간 교육격차와 수도권 중등학교의 현황

매년 지역 내 큰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실시되는 입시설명회는 교육청 및 시청 담당자와, 주로 성공수기를 발표하기 위한 입시에 성공한 졸업생,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참가해 자리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성황리에 진행된다. 정해진 형식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 입시설명회는 수많은 질문과 답변,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성토들이 오고가는 모습이 벌어지는 만큼 큰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다름이 아닌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입시설명회이다. 마치 유명 대입설명회를 방불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비평준화지역의 현실을 아주 잘 반영해준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대입과 직결되는 선택을 하는 만큼 아주 신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고등학교의 현황들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상한다. 이에 따라 중학교 3학년 학급의 담임을 맡은 교사들은 고3담임교사들의 대입상담만큼이나 어려운 상담을 하게 된다. 예전 같으면 집 가까운 학교 아무데나 진학을 해서 그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였지

만, 요즘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복잡해진 대입 절차만큼이나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도 미리부터 예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의 현실이 되었다.

2010년 올해 C지역의 중학교 3학년 담임들이 모인 고교입시설명회에 서 시청의 한 관계자는 내신점수 180점대 이상의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다. 심지어는 올해 중학교 3학년 담 임교사들의 우수학생들을 관내로 유치하는 성과가 인정이 되면 고등학 교 교사들에게 부여되던 해외 연수의 기회를 중학교 선생님들께도 드리 는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공언도 마다하지 않았다.⁴⁾ 현재 수도권 비 평준화 지역의 교육현황을 잘 말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들의 입시성적은 그 지역의 학력수준을 나타내 주는 지 표로 인식되고 활용된다. 학원에서 재원생의 성적결과를 큰 현수막에 과 시하는 것과 같이 고등학교도 항상 교문 앞에는 입시성적을 과시하기 위 해 명문대 진학 결과가 나타난 대형 현수막을 걸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성과를 과시하여 우수한 경쟁력을 내비치는 이런 모습은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차이가 없다. 그 해의 고등학교 입시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교 선택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각 학교의 이 러한 우수학생 유치 경쟁은 해가 갈수록 뜨겁다. 해마다 대입 못지않게 고교입시철이 되면 각 급 공·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지역 내의 고등학교 로 입시홍보를 다닌다. 입시 홍보의 주요 내용은 대략 비슷한데, 그 내용 은 홍보대상 고등학교에서 우수학생을 얼마나 좋은 대학으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학교 정책과 그 간의 입시결과이다.

그간 우수학생을 유치했던 학교에서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대입결 과를, 상대적으로 성적서열이 낮은 학교에서는 그간 입학했던 학생들의 내신에 대비하여 얼마나 좋은 대학에 진학했는지를 성토했다. 학교의 서

4) 해외연수의 기회는 다음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학교 우수교원과 교감·교 장에게 부여되는 혜택으로 담당자의 이 같은 발언은 정책의 실제에 대한 파악 이 부족함에도 따른 실수로 보인다.

열에 상관없이 입을 모아서 강조하는 점은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뽑아서 관리하는 특별 학급에 대한 특수지도에 대한 지원이다. 경쟁을 중요시하고 있는 현 교육정국에 따른 진풍경이 아니라 볼 수 없는데, 같은 중등의 공교육 사이에서 인근의 학교를 제치고자 우수학생의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는 모습이 다소 어색하게 생각되지만, 현장에선 무척 당연하게 관례화 되어 있다. 혹, 이런 것들에 소홀하기라도 하면 그 학교는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시설명회에서부터 행여 소홀한 모습을 보이면, 입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행여 우수한 학생들로부터 소외를 받게 될 경우 한 번 형성된 학교의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질 않기 때문에 해마다 입시설명회에서부터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각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외주 업체에 학교 동영상과 팸플릿과 같은 홍보물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 제작하고, 중학교 학생들과 진학 담당 교사들에게 선물을 준비한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인근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 관련 올림피아드를 실시하여, 상위권 학생들에게 큰 선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도권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들은 우수학생 유치경쟁을 한다. 그 해 신입생들의 성적분포가 곧 고등학교의 대입성적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은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무척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해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는 대입만큼이나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먼저 대입 수시 전형을 위해 유리한 내신점수를 획득해야 하는 점과, 면학을 위한 학교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학생들의 고민은 보다 더 깊어진다. 이러한 점은 평준화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지망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써서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정해지는 지역의 경우도 평준화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화에 의해서 명문고등학교가 정해진다. 2000년대 초까지 경기도의 4대 명문고로 불린 학교 중 성남시 분당의 서

현고와 부친의 부친고는 여전히 지역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학년도 수능성적 분석결과 전국 10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⁵⁾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특수한 학교의 경우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기존부터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했던 이들 학교의 경우 명문사립고로서 지역사회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이래 변화하는 입시체제에 따라서 더욱더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A시의 C고와 B시의 D고의 경우 주로 인근 시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오는 고등학교로 전국에서 수능성적이 30위권 안에 드는 학교들이다. 이들 특목고나 자체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 학생 선발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다. 이처럼 지역에서 고등학교의 서열은 대부분 명백하게 정해진다. 특목고 및 명문사립고에서 일반계고에 이어지는 서열화는 입학학생들의 내신성적을 통해서 보면 더욱 명백하게 알 수 있다(<표 2> 참고).

진학할 고등학교를 결정해야 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이런 다양한 경우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대체로 성적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대략 한정이 되어 있지만, 문제는 서열이 낮은 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할지, 서열이 높은 학교에 낮거나 중간 성적으로 입학을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 이 고민의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다. 서열이 낮은 학교의 경우 수시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열이 높은 학교의 경우 면학분위기와 경쟁심을 부추겨 더 높은 성취도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고민은 무척 심각하고 중요하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관심은 중학교에서 높은 내신점수를 기록한 학생들에게 집중된다. 이들은 이미 중학교부터 입증된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하면 학교에든 지역사회에든 큰 지도

5) 출처: 《동아일보》, 2009.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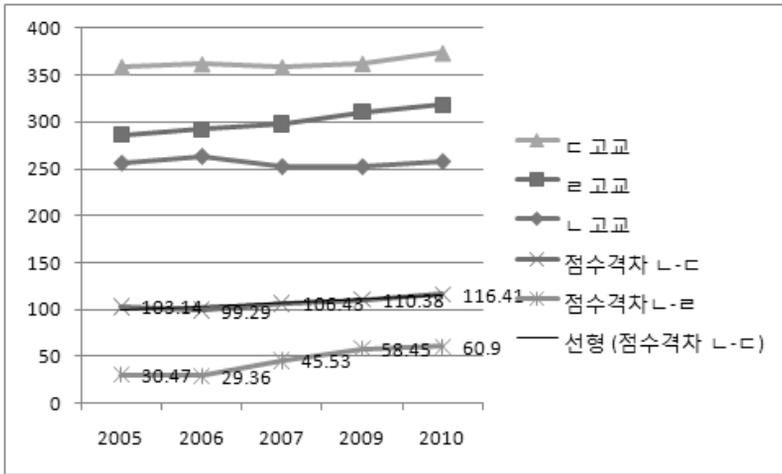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했듯 C시의 진학설명회에서 조차 내신점수 180점대 이상의 학생들의 유치를 독려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C시 관계자의 이런 발언을 통해 자꾸만 인근으로 유출되는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붙잡아 두려는 절실한 모습이 보인다. 180점대 이상의 내신점수는 대략 중학교 1학년부턴 꾸준히 반에서 5위권 내외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면 얻을 수 있는 성적인 만큼 상위권의 우수한 학생들이며, 이러한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그 지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그간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특목고나 명문사립고로의 진학을 선호해왔다. 실제로 C시의 경우 내신 190점 이상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주로 인근의 A, B, D시로의 진학을 선호해 왔다. 하지만, D지역이 평준화 된 이후로 이곳으로 유출되는 상위권의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A, B시로의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평준화지역에서조차 상위권의 학생들도 특정 고교로의 진학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강원도의 춘천이나 원주의 경우 평준화를 실시했다가 다시 비평준화로 복귀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종의 평준화는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믿음이 있다. 평준화 문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하지만 이런 상위권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난 이후에도 문제는 고민은 계속된다. 상위권 고등학교들의 경우 수능에서 무척 강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수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수시 모집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학생부 성적이 중요한 상황에서 우수한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그리 썩 좋지않은 않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몇 개의 명문 사립대학에서 고교등급제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소문과, 올 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런 상위권 고등학교들의 강세는 점차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 간 학교 간의 교육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실제로 최근 5년간의 고교별 수능 성적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3개 고등학교의 수능 3개영역(언어, 수리-나, 외국어) 표준점수 차

(자료: <http://www.journalogplus.net/education/>)



<그림 1>에서 비교한 3개의 고등학교는 각각 C시의 서열이 다른 2개의 인문계 공립고등학교와 B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최상위권 고등학교이다. B시의 C고의 경우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학교로 모집단위가 매우 넓다. C시 소재 B고교의 경우 C ‘갑’구에서 비교적 상위권의 고등학교이며, A고교의 경우 역시 같은 지역에서 중간정도 수준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되겠다. 이 세 고등학교의 점수비교가 의미 있는 이유는 C시의 두 학교의 경우 모집범위가 같으며, C고의 경우 주로 A, B, C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므로 비슷한 모집범위를 가진다. C고의 경우 인근지역의 중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내신점수 190점대 이상의 최상위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로서 이 학교의 경우 인근지역과의 교육격차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B고교와 A고교의 경우 대체적으로 내신 점수분포에 따라 성

적순서대로 입학할 하게 되므로, 이들 각 학교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지역 내, 또는 학교 수준에 따른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비교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세 학교는 C지역의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학교이므로, 지역 내의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표본이 될 수 있다. 표를 보면 2005년 이후 ㄹ고교와 ㄷ고의 표준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ㄴ고교의 경우 다소 간의 점수의 등락을 기록하지만, 점수의 뚜렷한 증가를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거의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적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차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의 지역 내에서 인근 학교 간의 점수 차이가 표와 같이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도 주목할 만하지만, 특히 ㄴ, ㄷ 고교의 격차를 통해 두 지역 간의 점수 간극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는 수능점수 분석자료이므로 최근 점수가 높은 학교로 더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와 같은 격차가 최소 향후 3년간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A, B, C 각 지역에서 점수가 높은 상위 3개 고등학교의 2010년 수능점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를 보면 C지역의 고등학생들의 학력수준은 B이나 A에 비해서 훨씬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전체 평균 300점 이상의 학교를 보면 C 지역에는 총 8개 학교 중 오직 한 개의 학교가 318점으로 이를 조금 넘고 있는 반면, B의 경우 총 11개 인문계고 중 6개의 학교가 300점 이상을 기록했으며, A의 경우 총 7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중 4개의 학교가 이를 만족시켜주고 있다. 비율상으로 따져보아도 B이나 A의 경우 절반 이상의 학교가 높은 수능 점수평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지역 간의 학력격차는 이미 초·중등의 저학년부턴 공고하게 굳어진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이들 지역들 간의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지역 간 학력격차는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를 거쳐서 이어지는 현

< 표 1 > 2009년 중학교 3학년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비교
(자료: 교과부)

지역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평균		
	보통 이상	기초 학력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학력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학력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학력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학력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학력	기초 미달
A	67.4	26.0	6.6	61.3	27.9	10.9	53.7	32.3	14.1	58.5	30.9	10.6	68.1	25.8	6.0	61.8	28.6	9.6
C	68.5	27.7	3.8	64.5	29.1	6.3	51.4	37.5	11.1	58.9	35.1	5.9	65.3	29.8	5.0	61.7	31.8	6.4
B	67.2	27.9	4.9	61.7	30.2	8.2	50.5	37.0	12.6	60.0	32.9	7.1	65.9	28.4	5.6	61.1	31.3	7.7

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위의 표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는 보통 이상의 학생과 기초학력의 학생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오히려 C지역이 A이나 B에 비해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초학력 미달의 학생의 경우에도 C지역은 다른 상위 두 개 학교에 이어 경기도에서 3번째로 적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이들 세 지역 간의 학력격차는 중학교에서는 없다가 고등학교로 가면서 갑자기 나타난다. 그러므로 C지역의 상위권 중학생들이 고교진학에 있어서 상당수 인근지역의 상위권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다는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게다가 앞에서와 같이 고등학교 간 수능성적의 지역 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점차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주는데, 특히 C지역 중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보다는 A나 B로의 진학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 간의 학력격차가 공고화될 때 C시와 같은 지역의 중학교 학생들의 선택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과 최하위권 학생들의 고교진학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가의 문제와 더불어서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를 추가로 생각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입수능과 수시모집을 염두에 둘 때 어떤 곳으로의 진학이 유리할지를 따져보아야 하므로, 그 선택이 쉽지

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거주지 주변보다 먼 지역으로의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런 경우도 시는 이러한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반대로 하위권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인데, 역으로 자신의 주변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역 내에서도 A의 경우 주요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성적상위고등학교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B의 경우도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상위권 고등학교가 분포해 있다. C의 경우도 주요 아파트지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두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주변지역에 다소 거리를 두고 분포해 있으며, 이들 고등학교에는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대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된다.

대체로 C지역의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A시나 B시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모두 내신 180점대 이상의 우수한 학생들이며, 내신 점수가 100점 내외 또는 미만의 학생들은 이 중학교가 위치한 C시 아파트단지에서 거리상으로 벗어난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학교는 최근 2~3년 내에 신설된 고등학교이거나,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관외지역의 실업계 학교들이다. B시나 A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C시 지역의 상위권학생들이 이들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B이나 A지역의 최하위권 학생들은 주로 앞서 말한 C시 지역의 최근 신설된 학교나 D평준화 지역의 주변부 고등학교들, 또는 실업계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은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며, 이들 고등학교가 이러한 낮은 학력수준에서 탈피하고자 한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지역 자체에서도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이라는⁶⁾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역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이러한

6) 여기서의 교육환경이라 함은 대개 대입입시지도 능력 및 결과를 지칭함.

경쟁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기존의 서열관계를 타파하고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들어 강력하게 실시되기 시작한다. 바로 이 현실 정책을 통해서 경쟁적인 교육풍토와 학력격차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보다 진전시켜 보도록 한다.

2)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의 탄생

서울시 용산구, 중구, 경북 구미, 경남 창원, 금산, 인천, 시흥시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역에서 지역 내의 명문고등학교를 길러내고자 하는 사업에 한창이다. 이른 바 명문고 육성프로젝트로 이 여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의 대략적인 공통점은 모두 지역의 인재유출을 막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상위권의 학생들을 지역 내로 묶어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을 사용한다. 지역 내 명문고등학교를 하나 유지하게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은 매우 많다. 지역의 이미지나, 지역경제, 심지어는 해당 명문학교나 특목고 또는 인지도가 높고 유명한 학교의 경우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

실제로 성남시 소재 남한산초등학교의 경우 최근 매체를 통해서 학교가 유명해지자, 남한산성 내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교육환경은 주거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볼 때 이들 지역에서 명문학교를 만드는 일은 꽤 역점을 들만한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2007년 C시에서는 명문고 육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7일 명문고 육성을 위한 추진위원회의를 시장, 교육장, 도교육청 주요당직자 등 13명의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도교육위원회의 한 교육위원은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중학생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중학생들

의 육성, 학교관리자인 교장의 의지, 명문고 육성을 위한 방안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지역 내 어떤 고교 교장은 “우수한 학생과 더불어 우수한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교사들이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명문고 육성사업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이며, 둘째는 교사와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학교와 교사들로 하여금 해당 시지역의 관내 학교로의 진학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서울의 어떤 구의 경우 2009년에 변화하는 고교입시제도에 따라서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3년간 50억 원의 예산을 매치펀드를 활용 해 투입을 하기로 한다. 여기서 해당시 구청장은 “이번 기회가 교육도시 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총력을 모아 다른 지역과의 교육 경쟁력을 높ی겠다”고 밝혔다.⁷⁾ 이를 비교해보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대로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교’가 아니라 특화된 학풍을 지닌 강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C시와 다소 차이를 볼 수 가 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인 사업의 방향의 초점이 C시에서는 보다 학생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반면, 서울 어떤 구의 경우 교육내용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점에서 다소 다른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해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지만, 2009년 C시의 명문고 육성사업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예산 17억 7천 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중 주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C시 관내 1개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14억의 예산이 투입되며, 다음으로 3억 원이 중·고등학교

7) 출처: 《서울신문》, 2009.04.14.

재정지원사업으로 투입이 된다. 다음으로 우수교사 지원사업에 총 4천 8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은 중학교에 2억 천만 원을 지원하며, 지급하는 방법은 최우수교, 우수교, 장려와 같이 등급을 매겨서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여기서 등급을 매기는 방법은 중학교의 경우 고득점자, 즉 180점대 이상의 학생들을 관내학교로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학교 별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180점 이상의 학생들의 수를 따져서 가장 많은 고득점자를 보낸 학교부터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율로 산정이 되므로 비율상 가장 많은 상위권의 학생들을 관내학교로 진학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180점대 이하의 학생들은 고려의 대상이 되질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와 시청, 교육청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입결과를 통해서 지역 내 3개 지구별로 각 1개 교씩이 선발되어 학교당 3천만 원씩 지원이 된다.

우수교사 지원사업은 중학교의 경우 진학지도 우수교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여기서 역시 우수교사 선정 방식은 우수교 선정방식과 같은데, 각 학급별로 180점대 이상의 학생이 얼마나 관내 고등학교로 많이 진학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각 반별로 성적우수학생의 관내진학자 수를 비교하여 관내고교로 가장 많이 진학한 학급의 담임이 우수교사로 선정이 되는 방식이다. 역시나 180점대 이하의 학생은 관내 외 진학에 상관없이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점수가 높은 학생이 관내로 진학할수록 유리하다. 이에 따라서 우수교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인사상의 가산점과 해외연수이다. 우수교사로 선정이 되면 이듬해 여름방학 중 해외의 교육선진국을 지정해 자비부담 없이 일주일 간의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데, 최근 3년 간 미국으로 약 6일 간의 해외연수가 시행 된 바 있다.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육발전진흥재단의 기금을 이용하여 연

간 4천 6백여만 원의 예산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다. 연간 20명의 학생을 선정하는데,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C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중 최고 성적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부여된다. 또한 장학금은 고등학교 전 학년 동안 지급이 되는데, 여기서 지급의 조건은 매학기 특정 5개 영역(국, 수, 영, 과학, 사탐)의 과목 평균 등급이 2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중 수능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 이상의 1등급을 획득하여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는 대학 전 학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조건은 서울대와 연대, 고대에 진학할 경우에 한한다. 특히 2011년부터 관내 고교에 진학한 학생들 중 서울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보면 지역 내의 고등학교에서 주요 명문대학으로의 진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점이다.

이 외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 명문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을 초청하여 실시하는 졸업생 간담회에 6백만 원을 투입하고, 홍보 및 워크숍에 2천만 원을 투입한다.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업의 방향은 무척 단순한데, 우수학생을 관내 고등학교로 많이 진학을 시킴으로 인해서 관내 고등학교의 교육수준을 높여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 중 교육환경을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2010년 현재까지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C시의 중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관내학교로 진학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러한 노력을 유발시키는 지의 여부는 의문시되는 점이지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흐름의 변화는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을 듯하다. C시 전체 고교진학결과에 대한 통계치에서 이런 결과를 다소나마 확인할 수 있다. 2008년도 내신 180점 이상 학생 656명 가운데 74%인 484명이 타 지역 고교로 진학을 했고, 2009년에는 역시 같은 180점대 이상 학

생 1천 48명 가운데 61%인 640명이, 2010년에는 50% 학생이 타 지역고교로 진학했다.⁸⁾ 수치상으로 보아 고득점 학생들의 C시 관내로의 진학이 점차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올 해 장학금 지원사업에는 이벤트성의 계획으로, 관내고교에서 서울대로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장학금 천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목표치인 서울대 20명 진학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한 해 장학금 예산으로만 2억이 소요될 것으로 단순 계산된다. 이정도면 2009년 명문고 사업에서 전체 중학교에 지원되는 금액과 맞먹는 액수다. 문제는 이러한 장학금 지원사업의 정당성 문제다. 2010년 고교·대학생 160명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2억 6800만 원인데, 이 중 저소득층 자녀 13명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1783만 600원에 불과하다. 상당 액수의 학금을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에게 지급하다보니 그 외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예산이 턱없이 적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업이 과연 이 지역의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동의를 얻는 사업이기에는 다소 극단적이고 불평등하다. 명목상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지만, 실상 사업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마치 1등에게 모든 것을 몰아서 주는 형태의 사업이므로, 이러한 혜택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여부는 깊이 따져 봐야 한다.

물론 이러한 관내 학교로의 진학 결과가 C시의 명문고 육성프로젝트 사업의 추진결과인지도 역시 명료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2008년 이후 이 지역의 교육환경 자체가 많이 변화해 왔는데, 관내지역의 상위 고등학교의 대입 진학결과가 꾸준히 좋아졌다는 점이다. 이미 2008년부터 관내 고등학교에서 꾸준히 1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던 사실과, 그 외 명문대학으로의 진학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점도 적지 않은 작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시 모집 전형 인원의 확대로 인해 학생부 내신성적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오고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서 이 지역의 관내 중

8) 출처: 《경기일보》, 2009.10.23; 《매일경제》, 2010.06.14.

학교 학생들의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는 점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후 고득점 학생들의 관내고교로의 진학은 명료하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관점에 따라서는 명문고 육성사업의 결과로 해석을 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과도한 결론의 도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이다. 하지만, 어쨌건 가시적인 성과가 사업 시행 이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의 시행이 견고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경쟁주의적인 도시의 교육과 학생의 권리

2008년 C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입학생을 기적으로 배출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내신점수가 180점대 중반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이 고등학교가 해당 지구 내에서 그리 서열이 높은 학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학생은 줄곧 전교 1등을 독차지하면서 최고의 내신점수를 기록하였고, 내신 점수가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았던 그 학생은 서울대 수시모집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합격을 하게 되었다. 매우 놀라운 성공신화다. 성적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학생의 놀라운 신화는 나머지 학생들의 이른바 ‘깎아주기’와 학교에서의 특별관리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이 학교는 단기간에 지역 내에서의 서열에 있어서 빠른 상승세를 타게 되어서 상위권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이처럼 성적 상위권의 학생들은 어디에서나 특별관리의 대상이 된다.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에 다수가 진학을 하였다 하더라도, 서울대 1명 진학만큼의 홍보효과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성공신화를 이루기 위해 각 학교들은 서울대 보내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대개 30명 내외의 특별반을 구성하여 최고의 시설과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방과 후 교실도 다른 학생들과 차별적으로 실시가 되며, 항상 수능 주요

과목의 교사가 상주하면서 학습을 관리한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과 정규 과정의 수업만을 같이 하며 정규수업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자리를 옮겨 차별적으로 학습한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인터뷰 기사이다.

안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상황도 마찬가지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사물함이 먼저 배정된다. 스펙을 쌓기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경시대회 등 정보도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전달된다.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지만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⁹⁾

한편, 입학사정관제가 널리 실시될 것이라는 계획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별은 계속된다. 학교에서 관리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모든 교과와 특기사항, 기타의견, 독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학생부의 모든 사항들이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된다. 심지어 어떤 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4~5쪽 분량의 학생부가 무려 10쪽을 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 관리는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집중된다.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업분야에만 집중을 해서는 성공하기가 힘들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생활지도가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생활지도로서의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일정부분 학교의 성적향상을 위한 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 생활지도를 강하게 하는 학교일 수록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그러한 반항적이고 이탈적인 성향을 자주 보이게 되므로, 이런 학생들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강한 생활지도를 통해 소문이 나게 되면, 이러한 학생들을 미리 입학과정에서 차단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도 하다. 또한 외부에 대한

9) 출처: 《경향신문》, 2010.01.12.

이미지도 꽤 중요하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학교 밖에서의 사생활은 그 학교를 평가하게 되는 지표가 되기도 하므로, 단정한 복장과 두발, 생활습관에 대한 생활지도는 인근 지역사회에 대한 소문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강력한 생활지도는 지역사회에서 좋은 학교로 인식되는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특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밤늦은 시간까지 전 교실에 전등이 켜져 있는 고등학교의 경관은 그 학교의 많은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교사와 학생들 간의 끊임없는 사투가 이어진다. 사실상 야간 자율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의 성공가능성은 높다. 특히 성적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주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렇다. 하지만, 이런 학교가 사실상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에 남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학교에 남겨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 무척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 고등학교의 담임교사들은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교사의 입장에서 이런 일은 곤욕스럽다. 수업지도가 아닌 다른 이유로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해야하는 일이 달가울 리 없다. 이런 이유로 적어도 경기도 지역의 중등교사들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한 때 이 때문에 고등학교 근무에 대한 인사상의 가산점이 부여된 적이 있을 정도다. 특히, 취학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학급담임을 맡을 경우 가정생활에 큰 지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대부분 회피한다.

교사들의 경우가 이런 때 학생들의 어려움도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딱딱하고 불편한 책상과 의자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지내야 한다는 것도 힘들 테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방향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학교와의 마찰로 인해서 겪게 되는 심적 부담이다. 실제로 현재 관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인 한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예로 들어본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유도할 정도로 학교에서는 매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보충학습과 야간 자율학습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 집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을 비롯해서 학교에 남길 거부하는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심한 모욕적인 말과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이런 심적인 고통은 더욱더 큰 상처로 남는다. 학습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는 학교의 입장에서 이런 식의 강력한 대응은 종종 발생한다. 학교에 남아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생의 수와 그 학교의 대입진학 성적이 비례한다고 믿는 이들에게 학교에 학생들을 오랫동안 남게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특별관리 대상이 되는 학생들과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습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과 학교에 잘 적응을 하지만, 성적이 그리 높지 않은 나머지 대부분 학생들 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공부할 권리조차 제대로 부여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학교가 아닌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공부, 또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위해서는 갈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과 후 보충학습과 야간 자율학습이 마치는 시간 이후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 실제로 인문계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주변의 많은 학원 차들이 교문 앞에 줄지어 선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대개 이들은 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학원에서 또 다시 수업을 듣는다.

이런 모습에서 학생의 인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10년 9월 한 ‘서울시 교육감 초청강연’ 행사에서 궤노현 현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의 두발자유이 언제 되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두발 자유라, 제 주변에서 자꾸 불난 집에 기름 끼었지 말라는 말을 한

다. 학생인권조례 만든 다음에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답했다.¹⁰⁾ 현재 학생의 인권을 담론의 장으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는 언급이다.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에서 아주 많은 공을 들이는 부분이 생활지도다. 대체로 학생의 용모나 태도 등이 그 학교의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단정한 용모와 태도를 위한 노력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과 발생하는 마찰은 더 많다. 복장과 두발 태도 등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은 적지 않다. 몇 년 전 어느 고등학교에서의 실제 발생했던 일이다. 여학생의 두발규정에서 머리 길이의 규정이 명찰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논의되던 중 누군가가 학생의 교복에 명찰의 높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규정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학생부장교사가 “그렇다면, 견갑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견갑골도 학생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고려하다 보면 두발규정을 어떻게 정하냐고 대응을 했고 논의는 대략 마무리됐다. 당시 교칙이 학생부장의 말에 따라 개정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학생의 두발규정에 대해 견갑골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공고문이 얼마간 붙어있었다. 웃지 못할 이야기이다.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지도에 도움이 안 되는 학생들을 퇴학이나 자퇴 등의 조치를 이용해 배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경기도 동부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를 떠난 학생이 120명을 넘어섰다. 3개 학급 규모의 학생이 사라진 것이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은 인터뷰를 통해 “선생님이 하도 많이 때려서 나가는 아이도 있고, 사고를 쳐서 학교를 떠난 아이도 많다. 학생들이 언제 퇴학

10) 출처: 《오마이뉴스》, 2010.09.28.

을 당할지 몰라서 불안할 정도다. 화장이나 두발, 복장 단속도 강해졌다. 교사의 지시불이행으로도 퇴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별점이 많은 아이들은 ‘실미도’라고 불리는 강당에서 벌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¹¹⁾

퇴학이나 자퇴를 통해서 학생들을 걸러내는 방법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단기간에 큰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이다. 생활지도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의지를 밝히는 효과가 나타남과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사전에 차단 할 수도 있으며, 학교의 분위기도 빠르게 조성할 수 있다. 때문에 적지 않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징계권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낮은 성적과 태도와 행실이 바르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요구는 가혹하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쫓겨나야 하며, 자신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쫓겨나야 한다. 체벌의 대안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상점과 별점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서 전북 장수중 김인봉 교장은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겉으로는 체벌을 없애기 위한 것이어서 우리 학교도 해 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우리 학교의 경우 무관심 속에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실시하지 않을 생각이다”면서 “이 제도를 교과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 교육적 효과도 별로 없고, 인권침해 소지도 많다”고 설명했다.

7차교육과정의 도입 이후 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에도 영어와 수학 과목에 한하여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한다. 둘 또는 세 개의 학급을 대상으로 과목별로 상·중·하 또는 상·하로 수준을 나누어 각각 수준별로 교실을 나누어서 수업을 하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영어나 수학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각자 자기의 수준에 해당되는 반으로 이동을 해서 각각 다른 선생님께서 차별적인 수업을 받는다. 이는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서

11) 출처: 《경향신문》, 2010.01.12.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어느 한 순간에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당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운영이 이렇듯 학업수준이 낮은 아이에게로부터 행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할 자격을 의심해본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부터 철저하게 학력에 대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교육정책의 기조는 현재 도시 내, 도시 간 학력격차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쟁 중심주의로 인해서, 학업보다 더 중요한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때다.

3. 결론-차별을 넘어서 차이로

영화 <식스센스>에서 중반부에서의 놀라운 반전은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를 준다.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학 일반이론이 켈러의 통찰학습이론(일명 '아하!' 이론)이다. 따라서 이 영화는 처음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지막 장면을 봐야 영화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처음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영화를 앞부분만 반복해서 본다면, 영화 장면에 대한 기억만 높일 뿐, 아무런 흥미도 감동도 이해도 가져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이런 효과는 종종 발견된다. 심화과정 없이 기초과정을만 반복한다면, 어떤 교과목에서든 따분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능교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과목들의 경우 단계를 밟아 기초를 토대로 더 상위수준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명한 진리에 따라 행해지는 다양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차별 보다 차이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Dikec, 2001). 기초가 다소 부족한 아이들이 더 많고 다양한 또는 더 수준이 높은 그런 내용을 학습하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도태될지, 아니면, 반대로 같은 수준의 기초교육만 계속해서 받을 경우 그 아이의 학력은 높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과 차별은 낮은 수준의 아이들이 이

런 영화 중반부의 반전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은 아닐까?

학교 간의 격차는 이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구성원을 달리하므로 더욱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준화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서서히 힘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학교의 차별화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평준화의 효과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 있는 연구가 있다.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에 따르면 연구 대상이 된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력격차에 대한 연구에서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서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강상진(2005)은 전국 일반계 고교 126곳(전체 일반고의 10%) 858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준화 정책 효과를 횡단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김기석(2005)은 2001년 국가 교육성취도 검사를 받은 고1 학생들이 2·3학년이 된 뒤 치른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3년간 추적하여 종단적으로 분석했다. 결과, 서울을 포함시켰을 경우와 제외시켰을 경우가 약간 다르지만, 모든 조건을 동질화한 상태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더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며, 3년간 추적연구 결과 역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 정도가 더 높았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초등학교에서부터 철저히 경쟁을 시켜야” 교육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이 과연 그럴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강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엘리트주의 사고방식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쟁을 통해서 교육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앞에서 서술한 PISA에서 경쟁중심교육정책을 취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보다, 철저히 경쟁에서 배제되도록 교육받는 핀란드의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학업성취도를 기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평준화의 확대에 대한 것이 아닐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력격차에 대해서 경쟁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것보다 세부적인 학력격차에 대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례로 거주자들의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공립학교와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의 공립학교 간에는 교육시설이나 교사의 지원, 원어민 교사와 같은 공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나타난다(OECD, 2004a; 김하수 외, 2006; 최은영, 2007). 이 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입이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만하다(OECD, 2004a; 류방란·김성식, 2006). 그러면 “누구도 뛰어난 재능이나 출발선상에서 유리한 지점에 설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Rawls, 1971)는 관점에서 우리 교육현실을 조명해 볼 때, 현실에 반영된 인식의 간극은 너무나 현저하다.

경쟁주의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노력을 하기 때문이며,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폴 윌리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계급 문화에는 육체노동력의 제공이 한편으로 자유, 선택, 초월을 표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체제 속으로 정확하게 편입되는 것을 표상하는 계기가 있다는—이렇게 해서 장차 노동자계급의 선택의 여지는 차단되고 만다는—중략—반학교 문화의 그 과정은 특수한 역사적 관계 속에 있는 일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결코 우연히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Paul, 1978).

노동자계급의 자녀들이 노동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비공식 집단을 통해 형성되는 반학교문화를 관찰하면서, 이들이 다시 노동자가 되는 과정을 본다. 결국 이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구조로 환원되는 것을 거부하였지만, 여기에는 특유한 방식을 통해 형성된 문화가 현실세계에서 일종의 재생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성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위계화되었을 경우, 문제는 성적이 위계적으로 낮은 학교에서 발생한다. 대체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곳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이런 위계서열이 낮은 학교가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사례에서의 지역과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낮은 성적수준의 학교에서 이러한 반학교 문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이런 학교와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거의 없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격차가 발생한다면, 결국 이러한 교육의 격차는 결국 도시 공간을 누리는데 있어 불평등의 기초적인 전제가 된다. 도시 공간을 점유하는데 있어 그 권리가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면, 교육을 통한 도시공간의 점유에 있어서도 성적에 따른 격차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전제로 하는 경쟁주의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도시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경기도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응이 실로 뜨겁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체입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사실상, 현재의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은 일반인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아주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현장의 반응은 아직 이르디는 반응이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너무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른 부작용과 학생들의 체벌권을 박탈당한 교사들의 통제권이 없다는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학교에서의 시행착오와 심지어는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들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들의 주요내용을 보면, 두발의 자율화, 체벌금지, 강제적인 보충학습과 자율학습 금지조항 등이 주요 쟁점이 되는 조항들이다. 그렇다면 왜 아직 이런 조항들이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조항들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체벌을(물론 체벌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쟁점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받아 왔다는 사실이 왜 아직 논

의가 되어오지 않았는지 다소 의아한 부분이다. 사실상 성적향상이라는 목표는 이러한 모든 인권논의들을 상쇄시킨다. 성적에 대한 이러한 공감대로 인해서 학교공간에서는 사실상 상충되는 가치인 기본적인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에둘러 가는 형국이 조성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어찌 보면 갑작스런 생떼 같이 여겨질 만도 한 것이다. 물론,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이런 학교에서의 경험이 무척 중요한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의 체벌이나 개성의 표현에 대한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제한이 과연 순수하게 학생의 인성이나 생활에 대한 지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은 무시한 채 학교만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섬처럼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전통적인 교육관이라는 명목 하에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을 거부하면서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을 덮어놓으려 하는 것은 더 고된 난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 문제들을 드러내놓고 개방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새로운 해결점을 본격적으로 찾아 나설 기회로 여기고 변화를 모색해볼 때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체벌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규제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체계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해 봐야 한다. 학교 내 상담이나 학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시스템의 조성을 위한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권조례와 같은 변화들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학교의 변화를 유도해나가는 것이 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것임을 명토박아두고 싶다. 높은 성적을 성취하여 초·중·고의 모든 학교과정이 대입으로 결론지어지는 이런 기형적인 교육구조에 대한 큰 틀에서의 변화를 모색해 볼 수도 있다. 학교와 교육정책의 변화가 시간에 따른 학교와 교권의 변화가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비인권적인 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해본다.

❖ Abstract

Competition to hold prestige high school between cities, and students' human right; Centered around south-west capital area

Kim, Ki N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issues regarding academic competitiveness and achievement between cities. Current public educational competitiveness have many serious problems. First, academic achievement gap between schools in an urban area as well as the areas is considerable. Second, the rights of students are threatened. In some cases, students who get low academic grade go to the high school far from their home. It damaged the rights to the city of student seriously. Third, the promoting prestige high school project was prosecuted by the local government of low academic leveled cities'. This abnormal policy cause the waste of the cities' budget. Therefore this paper encourages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to advance present educational problems.

Keywords: academic achievement gap, right to the city,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promoting prestige high school project

참고문헌

- 강상진. 2005. 『고교 평준화 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석. 2005.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적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하수 외. 2006.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류방란·김성식. 2006. 『교육격차와 학교교육의 기능』. 제32차 KEDI 교육정책포럼.
- 윤종혁 외. 200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 윤형호·강민정. 2009. 『서울시 자치구별 상위학교 진학률에 대한 거주지 효과분석』. <<서울도시연구>>, 9(4), 87~106.
- 전제아. 2001. 『롤즈의 공동자산 개념에 대한 교육 정의론적 고찰』. <<교육철학>>, 23, 131~150.
- 최은영. 2007. 『지역특성별 학교 간 교육환경의 격차』. <<공간과사회>>, 27, 150~171.
- Alexander, K. L. & Pallas, A. M. 1983. "Private Schools and Public Policy: New Evidence on Cognitive Achievement in Public and Private Schools." *Sociology of Education*, 56(October), 170~182.
- Coleman, J. S., Hoffer, T., & Kilgore, S. B. 1982. *High school achievement: Public, Catholic, and private schools compared*. New York: Basic Books.
- Dikec, M. 2001. "Justice and the spatial imagin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33, 1785~1805.
-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London: Edward Arnold Publishers. 최병두 옮김. 1983. 『사회정의와 도시』. 종로서적.
- Lefebvre H. 1973. *La survie du capitalisme: La re-meduction des rapports de smeduction Anthmepos*. <English translation> Bryant, F. 1976. *The Survival of Capitalism: Resmeduction of the Relations of Pmeduction*. London: Allison and Busby.
- McNeil, L. M. 2000. "Creating new inequalities: contradictions of reform." *Phi Delta Kappan*, 81(10), pp.729~734.
- OECD. 2004a. *Education and Equity*.
- _____. 2004b. *Policy Brief*.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Belknap Press.
- Skon, L., & Johnson, R. 1980.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conditions on children problem performanc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Spring, 17(1), 83~93.
- UNESCO. UN-HABITAT. 2009. *Urban Policies and the Right to the City-Rights, responsibilities and citizenship*. Paris. UNESCO. MOST.
- United Nations. 2005. *Economic, Social and Ctural Rights-Handbook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국가인권위원회 옮김. 2007. 경제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국가인권

기구를 위한 안내서.

World Urban Forum. 2004. *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Paul, W., 1978. *Learning To Labour*. Ashgate Publishing Limited. 김찬호·김영훈 옮김.

2004. 『학교와 계급 재생산: 반학교문화, 일상, 저항』. 이매진.

인터넷 자료

동아일보DESK: <http://www.journalogplus.net/education/>

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go.kr/pa/PARetrieveMain.laf>

논문투고일 2011.2.10

논문수정일 2011.3.3

계재확정일 2011.3.10